

지역 소식통

김제, 꽃빛드리축제 현장점검

안전하고 즐거운 꽃빛드리 축제를 만들기 위해 정성주 김제시장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27일 실시된 현장점검에는 정시장을 비롯해, 이찬준 부시장, 시 관계자 및 김제경찰서, 김제 소방서, 모범운전자회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민문화체육공원(김산동 445-1) 일원에서 축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행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보합에 가입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경찰서, 소방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참여 속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제장 가격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든 판매부스에서 3,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아무리 축제가 성공을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축제는 성공한 축제가 되지 못한다고 할 만큼 축제장의 안전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기초교육 실시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27일 덕암중학교(교장 정환진)에서 총 22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덕암고등학교, 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용지중학교 등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은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도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은 중·고등학생 및 신규 자원봉사단체 대상에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직접 방문해 자원봉사의 기본개념과 자원봉사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이 27일 첫 수확을 맞은 광활 갯벌 감자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가와 함께 수확을 했다.

지평선 광활 갯벌서 '수확의 기쁨'

정성주 김제시장, 감자 수확 현장 방문... 시민과 함께 '구슬땀'

정성주 김제시장이 27일 첫 수확을 맞은 광활 갯벌 감자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가와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제시 광활면은 지난 1920년 일제의 산미증식 계획에 의해 광활방조제가 축조돼 육지로 만들어졌다.

광활은 주 생산 작물이 쌀이지만 이모작으로 감자를 생산한다. 이 지역의 감자가 유명한 이유는 바다를 막아 만든 논이 오염되지 않은 간척지 토양에 다 풍부한 미네랄과 서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등 감자 생육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포실포실한 밤 맛이 나는 감자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자 재배철 광활을 방문하면 끝도 없이 펼쳐진 곳에, 햇살에 반짝이는 하얀 비닐하우스들이 넓은 지평선을 꽉 채워 백색혁명을 이루고 광활한 대지 위에 펼쳐진 시설하우스에서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백색혁명의 밑거름이 가득가득하다.

3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감자 수확은 5월 중순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광활감자는 280여 농가가 592ha 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봄 감자의 35%를 차지해 서울 가락동 시장 등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날 정 시장은 전국 제일의 감자 시설하우스를 방문해 수확의 시작에 동참했다. 정 시장은 김제권 농가(광활13길 133)를 방문해 수확 현장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렸으며 앞선 25일 첫 수확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감자 수확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활면에서는 지평선 감자를 지난해 1만톤 생산으로 약 300억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 재배면적을 36ha 증가시켜 1만 2천톤, 생산예정액 280여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시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일조량이 적어 농가당 작황이 예년보다 조금 좋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하지만 광활 감자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아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 작년만큼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선정

우석대·한국농수산대·전주대 컨소시엄 구성 주민 프로그램 제공

완주군이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지원을 받아 주민들에게 한층 강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7일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원하는 '2024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에 선정돼 도비 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시민대학사업은 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분부캠퍼스를 두고, 도내 대

학과 컨소시엄을 맺은 시군이 지역캠퍼스가 돼 지역주민에게 대학 교수진을 활용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우석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전주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노르딕워킹활동가교육, 베이커리, 한방건강차(우석대) △한우사양교육, 정밀조경수교육(한국농수산대) △AI 데이터기반교육(전주대) 등 총 11

개의 강좌를 운영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이며 교육생 모집은 4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양질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고,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시민대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교육이동복지과(290-3887)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교육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완주군이 2024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을 개설해 성공적인 영농을 돕는다.

관내 신규농업인과 귀농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5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매주 목요일 10회 4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신규농업인과 귀농희망자가 성공적으로 완주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정책의 설명, 작물재배기

술 및 병해충관리, 농기계 실습, 선도농가 견학 등이다.

희망자는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교육 담당자 이메일(dasom7155@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장혁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적인 영농기술교육을 통해 신규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업환경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확대 실시

김제시, 주 1회서 주 3회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체 체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차량관련 과태료의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다방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자동차 체납액은 8억8,700만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5%에 해당하며, 차량관련 과태료(책임보험, 검사지연, 주차차위반 등)의 전체 미납액은 14억9,500만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미납액의 35%에 해당한다.

체납 차량의 단속을 위해 시는 기존에 주 1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 3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시간대 또한 야

간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번호판의 상시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주체 또한 기존 세정과 내의 영치담당자에서 읍면동의 세무담당자까지 확대해 영치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체납차량 1,500여대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대상은 △자동차 체납액 2회(관외축적 차량은 3회) 이상 △과액 체납인 차량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인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캠페인 추진

김제시는 27일 전통시장, 김제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불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됐으며 앞서 지난 22일에도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

이 배출해 사람의 호흡기에 쉽게 침투하며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킨다.

자동차 공회전 시에는 주행시와 비교해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또한, 과도한 공회전은 윤활유의 유막형성기능을 약화시키고 점화플러그, 실린더 벽에 기름찌꺼기를 만들어 엔진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봉남면 복지기동대, 소외계층 가구 방문 봉사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정용)가 27일 회의실에서 복지기동대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갖고 저소득 소외계층 8가구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봉남면 복지기동대는 지난 2016년 11명의 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발족해

매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봉사단은 노인들의 낙상예방과 안전한 실내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소득 독거노인 8가구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